

내년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후보 간 지지 구도 윤곽

부동층 20% 안팎, 단일화 최대 변수

지난해 도내 언론사 여론조사... 정치 성향보다 '후보 경쟁력' 관련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정책 경쟁 통한 부동층 흡수 등 향후 승부처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후보 간 지지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적당도 조사에서 부동층이 20% 안팎에 이르면서 향후 판세는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뉴스스 전북취재본부와 전북도민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7~28일 전북지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차기 전북교육감 후보 적합도에서 천호성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전주교육대학교 교수)이 27.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17.3%로 뒤를 이었고 두 후보 간 격차는 10.3%p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이어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13.7%), 김유태 전 군산방사교정장규명위원회 자문위원(6.5%),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6.4%), 유성동 전 민주시민교육의원노조 정책실장(4.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없음'(7.4%)과 '잘 모름'(12.9%) 응답을 합친 부동층이 20.3%에 달해 선거 구도가 아직 고착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 역량 중시... 정치 성향보다 '후보 경쟁력' 관련

후보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29.5%가 '교육 정책 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고, '교육·행정 분야 전문성과 경험', '도덕성·청렴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성향이나 정치적 배경보다는 교육감으로서의 실질적 역량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향후 선거전이 이념 대결보다는 정책 경쟁과 후보 검증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

자 상당수가 향후 공약과 단일 후보 구도에 따라 움직일 여지가 크다는 점도 보여준다.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선거 최대 변수

현재 전북교육감 선거 구도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것은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다. 최근 도내 90여 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출범한 전북교육개혁위원회가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추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출마 예정자들이 잇달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천호성 전 자문위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일화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으며, 과거 선거에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나섰던 경험도 있다. 반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독자 구도로 인한 표 분산이 불가피해 보수·중도 성향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

임대표도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과 관련해 "위원회와 후보 등록과 검증 절차에 적극 참여해 교육혁신을 위한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현재 수치상 1위와 2위 격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층과 단일화 효과"라며 "단일후보가 조기에 확정될 경우 판세가 급격히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제는 '별린 관'... 향후 두 갈래 시나리오

전유기들은 이번 여론조사를 '초기 판세'로 규정하며, △민주진보 단일화 성사 여부 △정책 경쟁을 통한 중도·부동층 흡수 △지역·세대별 확실성 확보 여부가 향후 선거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지금은 누가 앞서 있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판을 짜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단일화와 정책 경쟁이 맞물리면 전북교육감 선거는 막판까지 유동적인 접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뉴스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14일 장수군 출입기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학교 소멸·지방 소멸 위기 교육 대전환으로 극복해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장수서 정책간담회

기초학력 완전책임제 등 세가지 과제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14일 장수군 출입기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학교 소멸과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전북 교육 현실을 진단하며 교육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교수는 “학교 소멸과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한 전북은 이제 지역 생존 자체가 최대 과제가 됐다”며 “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통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을 넘어 상생을 추구하고, 학력을 넘어 실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북 교육을 새롭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추진할 핵심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기초학력 완전책임제를 통해 단 한 명의 나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초학력은 개인 성장의 기반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진학진로교육원 신설

을 제안하며 “학생 중심의 개별 맞춤형 진학·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청렴과 공정을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며 “부패와 비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교수는 또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에도 유·초·중등 교육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출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년간의 현장 교사 경험과 20년간 수업을 연구하며 교육정책을 고민해 온 교수로서의 경력, 500여 차례 학교를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 경험이 융합된 현장교육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전북 교육을 위해 쓰고 싶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천 교수는 “전북 교육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제일고 조리제빵과

팝업 레스토랑 '완판'

남원제일고등학교(교장 김한태) 조리제빵과 학생들은 지난 10~11일 이틀간 남원 '이백플래' 카페에서 제8회 팝업 레스토랑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원제일고 조리제빵과의 팝업 레스토랑은 올해로 4년 연속 추진되고 있는 특색 사업이다. 학생들은 실제 매장 운영과 동일한 환경에서 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영 실무를 익히며 '로컬 크리에이터 외식업 창업 실무'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행사는 조리제빵과 학생들과 지도교사(교사 최정원)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레시피를 개발했다.

메인 요리인 양송이 크림 소스를 얹은 한우 채끝 스테이크를 필두로 야무즈 부쉬 에피타지, 리조또, 디저트로 이어지는 수준 높은 코스 요리를 선보였으며, 사전 예약 고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전 타임 '완판'을 기록했다.

특히 단순한 실습을 넘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레스토랑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매년 참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며, 일부는 학생들의 이름으로 지역 장학재단에도 기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제일고등학교 조리제빵과 학생들이 지난 10~11일 이틀간 남원 '이백플래' 카페에서 제8회 팝업 레스토랑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선배의 스마트기기, 후배의 꿈으로 재탄생’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양품화 사업 추진 ESG 경영 실천 앞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스마트기기 양품화 사업'을 추진,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교육청이 도내 학교에 일괄 보급한 태블릿,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졸업 학년의 기기 4만7,900여 대를 수거해 양품화 과정을 거쳐 초4, 중1, 고 학생들에게 재배부하는 자원 리사이클링 프로젝트다.

단순히 기기를 회수하고 재배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기기 양품화 작업장을 구축, 성능을 고도화하는 체계적인 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거된 기기는 스캔검사 및 수리 데이터 완전 삭제 및 포맷, 응용



S/W 초기화 설치 △해당 학교 맞춤형 스마트기기 재설정 △외관 세척 및 소독 △성능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새 기기에 준하는 상태로 재탄생된다.

도교육청은 실시간으로 양품화 작업 진행률을 관리하며 기기를 전수 검사하고 있으며, 2월 말까지 배부를 완료

해 학생들이 3월 새 학기 첫 수업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여유 기기를 미보급 대상이었던 초3 학생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노후된 교직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와 디지털 교육 세계화 사업(ODA) 협력기에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오선하 미래교육과장은 “스마트기기 양품화 사업은 자원 순환을 통한 탄소 중립 기여와 교육 예산 절감이라는 ESG 가치를 실천하며,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환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새 학기 전까지 보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026학년도 전북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참여 아동 8792명

451명 불참, 4명 소재 확인 안돼... 일부 수사 의뢰

2026학년도 전북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실시 결과 아동 4명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취학대상아동은 전년도 조기입학, 외국국적 아동 등을 포함해 92,499명이다. 이는 전년(1만159명) 대

비 916명(9%) 감소한 것이다. 취학대상 아동 중 8,792명(95.1%)이 예비소집에 참여했고, 451명(4.9%)이 불참했다.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451명 중 취학 유예·면제, 부모와 해외 출국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4명으로 전주 2명,

남원 1명, 무주 1명이다. 이중 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해 일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유선 연락·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취학대상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의 혁명, 전북교육 대개혁을 핵심으로 한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나섰다. (사진=뉴스스 제공)

“빛의 혁명, 전북교육 대개혁”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학교 현장 지원 강화·교육청 조직 개혁 제시

전북교육청 119 구축·행정센터 설치 등 담겨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출마하는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는 14일 전북자치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빛의 혁명, 전북교육 대개혁'을 핵심으로 한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뉴스스 보도에 따르면 노병섭 대표는 이날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 지켜낸 빛의 혁명을 전북교육의 대전환으로 완성하겠다"며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교육청 조직·인사 시스템 개혁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 대표가 공개한 공약에는 △학교 지원 최우선 체계인 전북교육청 119 구축 △교장 내부형 공모제 확대 △지역 추천 교육장 공모제 도입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센터 설치 △완전무상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대개혁 △학교 교육노동자 존중을 기반으로 한 교육공동체 실현 등이 담겼다.

특히 전북교육청 119는 학교 내 갈등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교육청이

즉각 현장에 개입해 초기 진단과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노 대표는 "교육청이 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인사 구조 개편과 관련해 교장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하고, 지역 교육장을 지역사회 추천 방식으로 선발하는 공모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노 대표는 최근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출범시킨 '전북교육개혁위원회'와 관련해 "위원회의 후보 등록과 검증 절차에 적극 참여해 교육혁신을 위한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 출신인 노병섭 대표는 전주생명과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해 34년 6개월 동안 교사로 재직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현재는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대학 무상화·평준화 전북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김재훈 기자